

화엄경소 기말과제 : 원효 4교판의 내용과 특징

불교학과 오일(김종민)

- I. 들어가는 말
- II. 원효 4교판의 내용
- III. 원효 4교판의 특징
- IV. 나가는 말

I. 서론

중국불교의 특징 중 하나라면, 교상판석(敎相判釋, 이하 교판)일 것이다. 인도에서 전래된 수많은 경전들은 설법의 시기와 대상, 교설의 내용이 서로 달랐으며, 이에 따라 각각의 경전을 어떠한 기준 아래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 속에서 성립한 교판은 무분별하게 중국으로 전래된 다양한 경전과 교설의 성격과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경전 해석학이었다. 특히 수·당대 이후 종파불교가 성립하면서 교판은 각 종파의 교학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주요 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종파불교에 의한 교판은 대체로 자종(自宗)의 소의경론을 최고의 교설로 설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가장 나중에 오는 장작이 제일 윗자리에 놓인다는[後來居上]’ 관점에 의해 이루어졌다.¹⁾ 중국 불교 교판이 나중에 위치한 경전일수록 더욱 원만하고 완성된 가르침이라는 경향에서 천태종은 『법화경』²⁾을, 화엄종은 『화엄경』³⁾을 최고의 교설로 제시하였으며, 법상종 또한 『해심밀경』⁴⁾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교판체계를 수립하였다. 따라서 교판은 경전 간의 우열을 가리는 작업이 되면서 각 종파의 사

1) 고영섭, 「분황 원효 저술의 서지학적 검토 - 敎判 認識과 學問 方法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사연구』, 2권 2호, 한국불교사연구소, 2013. p.10

2) 천태종은 화엄시(21일) - 『아함경』 등 초기교설로서 녹월시(12년)- 『유마경』·『금광명경』·『승만경』 등 대승경전을 설한 방등시(8년) - 반야시(21년) - 법화(8년)열반(1일1야)시에 이르는 5시와 돈(頓)-점(漸)-비밀(秘密)-부정(不定)의 화의4교(化儀四敎), 장통별원(藏通別圓)의 화법4교(化法四敎)로 이루어진 8교판을 통해 법화경 우위의 교판을 시설하였다.

3) 화엄종은 소승교-대승시교-대승종교-대승돈교-대승원교의 5교와 하위 10종판을 통해 『화엄경』 우위의 교판을 시설하였다.

4) 당 현장과 기에 의한 법상종은 제1법륜(有敎) - 제2법륜(空敎) - 제3법륜(中道敎)의 3시교를 통해 불요의교가 아닌 요의교인 『해심밀경』 우위의 교판을 시설하였다.

상적 입장을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중국불교 동향에 민감하였던 분황 원효(617~686)는 자종의 우월주의로서 변질된 중국불교의 교판경향을 비판하였는데, 만년작 『화엄경소』에서 『화엄경』 위주의 4교판을 제시하였다. 다만 그의 4교판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4교판이 제시되었던 『화엄경소』는 그 내용이 대부분 산일되어 현재는 『동문선』 권83 수록된 「진역화엄경소서」와 『신수대장경』의 「여래광명각품」의 주석 일부만이 전할 뿐이다.

따라서 오늘날 전해지는 원효의 4교판은 법장(法藏, 643~712)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이하 『탐현기』) 권1과 그의 제자 정영사 혜원(慧苑, 673?~743?)의 『속화엄경약소간정기(續華嚴經略疏刊定記)』(이하 『간정기』) 권1를 비롯한 주로 후대 화엄 문헌⁵⁾에 인용된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 역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자료적 한계를 전제로, 선행연구들⁶⁾을 참고하며 『화엄경소』를 중심으로 전승된 원효의 4교판을 검토하고, 그 특징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후대 문헌에 전하는 원효 4교판의 내용을 정리한 뒤, 그것이 화엄 중심의 교판이라는 점, 보법(普法)을 기준으로 한 일승을 구분하여 『화엄경』과 보현교가 그 범주로 하고 있기에 보법의 의미 구명 등을 통해 원효 4교판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원효 4교판의 내용

1. 원효 4교판의 전승

원효의 4교판은 그의 만년작⁷⁾인 『화엄경소』에서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대부분이 산일되어 4교판을 직접 확인할 수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존 『화엄경소』는 조선 초기 간행된 『동문선』 권83에 수록된 「진역화엄경소서」와 『신수대장경』에 수록되어있는 「여래광명각품」의 주석 일부에 불과하며, 4교판이 서술된 부분은 없다. 따라서 오늘날 원효의 4교판은 주로 후대 화엄 문헌에 인용된 내용을 통하여 그

5) 『탐현기』, 『간정기』 외 이통현(李通玄, 635~730)의 『신화엄경론(新華嚴經論)』 권3, 징관(澄觀, 738~839)의 『화엄경소(華嚴經疏)』 권2, 그리고 신라 표원(表員, 생몰년미상)의 『화엄경문의요결문답(華嚴經文義要決問答)』 권4 등.

6) 노채숙, 「원효의 교판 인식에 대한 연구 - 천태지의와 관련하여 -」, 『천태학연구』 제13호 석길암, 「원효의 보법(普法), 사상적 연원과 의미」, 『보조사상』 제32호, 보조사상연구원, 2009.

조수동, 「원효의 교판론과 일승설」, 『동아시아불교문화』 제5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0.

정희경, 「분황 원효 『화엄경소』의 내용과 특징」, 『불교철학』 제14집, 서울 : 동국대 세불연, 2024.

7) 『삼국유사』에서는 원효가 분황사에서 『화엄경소』의 집필 중 「십회향품」에 이르러 절필했기 때문에 최후작으로 보기도 하지만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다시 저술에 착수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후작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효 4교판에 시설된 화엄의 지위를 고려해 볼 때 만년작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영섭, p.17.) 고영섭은 이 글에서 원효 저술의 순서를 『초장관문』→『안신사심론』→『대승기신론별기』→『일도장』→『중변분별론소』→『이장의』→『본업경소』→『능가경요간』→『능가경종요』→『능가경소』→『무량수경종요』→『금광명경소』→『판비량론』(671)→『열반경종요』→『대승기신론소』→『금강삼매경론』→『화엄경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강을 확인할 수 있다.

원효의 4교판을 가장 이른 시기에 전하는 자료는 법장의 『탐현기』 권1이다. 법장은 불교사상 대표적인 10인의 교판론을 들면서 일곱 번째로 원효의 『화엄경소』에 4교판이 제시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일곱 번째, 당조 시기에 해동 신라국 원효법사가 이 경의 『소』를 지었으니, 역시 4교를 세웠다. 첫째, 삼승별교(三乘別教)로서 사제교와 『연기경』 등을 이른다. 둘째, 삼승통교(三乘通教)로서 『반야경』과 『해심밀경』 등을 이른다. 셋째, 일승분교(一乘分教)로서 『영락경』 및 『범망경』 등이다. 넷째, 일승만교(一乘滿教)로서 『화엄경』과 보현교를 이른다. 이 4가지로 분류한 것을 해석함은 저 『소』와 같다.⁸⁾

이 기록은 원효가 『화엄경소』에서 독자적인 4교판을 제시하였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자료이며 이통현의 『신화엄경론』 권3에도 『탐현기』의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다. 『탐현기』를 통해서 원효가 부처님의 일대 교설을 삼승별교, 삼승통교, 일승분교, 일승만교의 넷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장의 경우 명칭과 경명만 언급될 뿐 그 설명이 없어 각 교의 내용과 분류기준을 알기는 어렵다. 분류기준에 대해서는 그의 제자 혜원의 『간정기』에서 확인된다.

다섯 번째, 당대에 신라국 원효법사가 4교를 세웠다. 첫째, 삼승별교(三乘別教)로서 사제교와 『연기경』 등이다. 둘째, 삼승통교(三乘通教)로서 『반야경』과 『해심밀경』 등이다. 셋째, 일승분교(一乘分教)로서 『범망경』 등이다. 넷째, 일승만교(一乘滿教)로서 『화엄경』 등이다. 그리하여 삼승(三乘)이 함께 배우는 것을 삼승교(三乘教)라 명하되, 법공(法空)을 밝히지 않으면 별상교(別相教), 법공(法空)을 통틀어 설명해주면 통교(通教)가 되는 것이다. 이승(二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일승교(一乘教)라 명하되, 그 중에 보법(普法)을 아직 드러내지 않은 것을 수분교(隨分教)라 명하고, 보법(普法)을 다 밝힌 것을 원만교(圓滿教)라 명한 것이다. 갖추어 드러냄은 저 『화엄소』와 같다.⁹⁾

혜원은 삼승별교와 삼승통교는 법공(法空)의 이해 유무에 따라, 일승분교와 일승만교는 보법(普法)의 기준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하였다. 삼승교에 대해 성문, 연각, 보살 등의 삼승이 모두 함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삼승이라고 하였고, 일승교는 성문, 연각의 이승이 함께 하지 않는다하여, 즉 보살승만을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일승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혜원은 『탐현기』에서 언급되었던 일승분교에서 『영락경』을, 일승만교에서는 보현교를 누락했다.

8) 법장, 『華嚴經探玄記』 卷1(T35, p.111a26-b1), “七唐朝海東新羅國元曉法師造此經疏 亦立四教 一三乘別教 謂如四諦教緣起經等 二三乘通教 謂如般若經深密經等 三一乘分教 如瓔珞經及梵網等 四一乘滿教 謂華嚴經普賢教 釋此四別 如彼疏中”

9) 혜원, 『續華嚴經略疏刊定記』 卷1(X03, p.578b18-24), “五唐新羅國元曉法師 亦立四教 一三乘別教 如四諦教緣起經等 二三乘通教 如般若深密經等 三一乘分教 如梵網經等 四一乘滿教 如華嚴經等 然三乘共學名三乘教 不明法空 名別相教 通說法空 是為通教 不共二乘 名一乘教 於中未顯普法 名隨分教 復明普法 名圓滿教 具顯如彼華嚴疏中”

이외에도 징관에 의해 인용된 글이 있는데 원효는 자신의 4교판에 대해, “우선 승문(乘門)에 의거해 간략히 4종을 세운 것이지, 이 4가지 교가 일체의 교를 두루 포섭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¹⁰⁾라고 하였다.

2. 4교판 각 교에 배치된 경전 개요¹¹⁾

1) 삼승별교 : 사제교, 『연기경』

사제교 및 『연기경』은 『아함경』, 즉 초기교설로 이승(二乘)을 위한 소승의 가르침으로 볼 수 있다. 천태지의에 의해 『아함경』과 같은 초기교설은 5시 중 2시로 두 번째 설한 가르침이나, 성도 직후 처음으로 설한 『화엄경』은 삼매 중에 설하였기에 논외로 한다면 실제 『아함경』이 처음으로 설한 가르침이 된다. 장통별원(藏通別圓)의 화법4교(化法四教) 중 장교인데 보통 인천교(人天教)로 인식한다. 『아함경』에 관한 이러한 인식은 당시 동북아 불교 대승교학자들의 공통된 바이며, 원효 역시 이러한 이해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2) 삼승통교 : 『반야경』, 『해심밀경』

『반야경』은 반야를 주제로 설한 일련의 대승 경전을 통틀어서 일컫는다. 그 핵심 키워드는 ‘공(空)’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관의 입장을 대표한다. 『해심밀경』은 유식사상의 근본이 되는 경전으로, 중국 법상종의 소의경전이다. ‘해심밀(解心密)’은 긴밀하고 깊게 엮힌 것을 푼다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원효는 이 경에 대해서도 소를 지었지만, 서문만이 남아있다. 원효와 동시대 신라 출신인 원측의 소(10권)가 『해심밀경』의 세계 유일의 현존하며 대표적인 주석서이다.

3) 일승분교 : 『영락경』, 『범망경』

『영락경』은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의 약칭이다. 보살의 본업(本業)인 10주(十住) · 10행(十行) · 10회향(十廻向) · 10지(十地) · 등각(等覺) · 묘각(妙覺)의 42현성(四十二賢聖)의 수행과 그에 따라 증득되는 수행의 결과 또는 과보를 설한 경전이다. 상하 2권이며, 총 8품으로 구성되어있다. 『범망경』과 더불어 대승불교의 중요 계율서로 간주된다. 원효는 이에 대해 주석서¹²⁾를 지어었다.

10) 징관, 『大方廣佛華嚴經疏』卷2(T35, p.510a28-29), “自言 且依乘門略立四種 非謂此四遍攝一切”

11) 기본적으로 위키백과, 한국민족대백과사전 등 3차 자료를 참조.

12) 원효가 지은 『본업경소』는 의천에 의한 『신편제종교장총록』에 따르면 본래 3권이 있었다고 하고, 영초(永超, 1014-1096)의 『동역전등목록』에 의하면 2권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어느 것이 타당한지 확정할 수는 없다. 현재 하권 1권만 남아 있는데, 이것에 따르면 상중하의 3권 혹은 상하의 2권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권은 『보살영락본업경』 제3 현성학관품의 끝부분, 곧 십지심(十地心)

『영락경』과 더불어 대승불교의 중요 계율서로 간주되는 『범망경』 또한 보살의 수행 단계를 설하는 상권과 보살계를 설하는 하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영락경』을 『범망경』을 계승한 경전이라고 보고 있다.

4) 일승만교 : 『화엄경』, 보현교

『화엄경』은 대승경전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화엄종의 소의경전이다. 최초의 한역은 불타발타라(359~429)의 『대방광불화엄경』(60권, 진역화엄)이다. 이후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에 의해 더 보강되어서 80권인 당역화엄(699)이 출현하였다. 원효는 진역화엄을 저본으로 『화엄경소』를 비롯해 각종 화엄관련저술을 하였다. 원효는 서문에서 『화엄경』을 두고 ‘일만무상돈교법륜’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근기와 상관없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는 최상의 가르침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원효 사교판의 특징

1. 화엄 중심의 교판¹³⁾

보통 원효에 대해 각 경전과 교설을 공명정대하게 대하고 저마다 구경의 요의를 지닌다고 하여 화회의 논법을 구사한다고 한다. 그러나 4교판에 한해서는, 교설 간의 위계를 설정하는 작업일 수밖에 없는 교판의 특성상 가르침 간의 차별을 두는 것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효는 천태 지의의 교판에 대해 “4종으로 경의 뜻을 분류하고 5시로 부처님의 뜻을 한정하려 했으니, 마치 술잔으로 바닷물을 잔질하고 대롱으로 하늘을 엿보는 것과 같은 뿐이다”¹⁴⁾라며 비판했지만, 원효의 4교판 또한 용어와 분류 등 화법4교를 비롯한 종래 교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징관도 언급한 바¹⁵⁾이다.

우선 삼승별교에 배정한 사제교 및 『연기경』은 곧 초기교설에 해당하는 『아함경』으로 이를 통해서는 법공을 깨달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소승에 대한 대승의 우위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 교판론에 거의 통설로 원효 역시 그 이해범주를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삼승통교에 중관의 입장인 『반야경』과 유식의 입장인 『해심밀경』을 동등하게 배정한 것은 원효가 처음으로 이는 중관과 유식의 화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야경』이 이승을 강하게 배타하며 보살승을 견지한다는 점이나 『해심밀경』을

의 열 가지 관법(觀法) 중 아홉 번째인 입법제지(入法際智)를 설한 부분부터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13) 남동신, pp.309~314. 및 조수동의 논문을 참조.

14) 원효, 『열반종요』(ABC, H0009 v1, p.547a19-a21) “而欲以四宗科於經旨。亦以五時限於佛意。是猶以螺酌海。用管闕天者耳。”

15) 징관, 『大方廣佛華嚴經疏』 券2(T35, p.510)

소의경전으로 하는 현장과 기가 『법화경』의 일승사상에 반대하여, 차별을 강조하는 ‘삼승진실 일승방편’을 기치로 하고 있다는 것은 화쟁을 중시하는 원효의 입장에서 한계가 따르는 가르침이다.

이어 일승분교에 대승보살계와 보살행을 중시하는 『범망경』과 『영락경』을 배정한 것은 다소 파격으로서 그만큼 실천을 중시하는 원효 불교의 특성이 된다. 사상적으로도 『화엄경』과 긴밀한 친연성을 지닌 두 경전에서 대해 천태종에서는 3교 중의 돈교(頓敎)로 보고, 이들이 불종상주(佛種常住)의 일승의 묘지(妙旨)를 밝힌 것으로 『화엄경』과는 수기이설(隨機異說)일 뿐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화엄종의 2조 지엄 역시 두 경전이 『화엄경』의 일승분제의(一乘分齊義)를 드러낸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고려하면 원효가 이 두 경전을 일승분교라고 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 원효는 『영락경』과 『범망경』을 화엄의 일승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경전으로 보았던 것이다.

최상의 가르침인 일승만교에는 오직 『화엄경』만을 배정하여 4교판이 기본적으로 『화엄경』을 중심으로 전개된 교판이라고 할 수 있다. 『화엄경』과 함께 병기한 보현교는 『화엄경』의 보현행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만약 보현교가 보현행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보현교를 따로 분류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¹⁶⁾ 여하튼 원효에게 있어서 『화엄경』은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경전으로 일승의 원만한 세계를 대표하는 교설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원효의 4교판은, 교학[삼승통교]과 실천[일승분교]를 통해 최종적으로 화엄[일승만교]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원효의 불교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후대 원효를 화엄종에 소속시키는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는 원효의 입장은 아니다.

원효는 각자의 경전은 저마다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부처님의 구경의 요의를 담고 있어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원효는 『화엄경』을 말할 때는 『화엄경』을 궁극의 경전이라 평하지만, 『열반경』을 말할 때는 『열반경』이 최고의 경전이라 말한다. 이러한 입장은 원효가 하나의 종파에 얽매이지 않는 탈종파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보법의 연원과 의미

원효에게 있어 일승을 구분하는 기준은 보법(普法)¹⁷⁾이다. 혜원의 글에 의하면 일승분교를 “보법을 아직 드러내지 않은 교설”이라 하고, 일승만교를 “보법을 다 밝힌 교설”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원효가 『화엄경』만이 보법을 다 밝히고 있다고 했다면,

16) 조수동, p.210

17) 보법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삼계교(三階敎)를 개창한 신행(信行, 540~594)이었다. 삼계교를 달리 보법종(普法宗)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삼계교의 교판론에서 최상승의 가르침을 ‘보귀보법(普歸普法)’이라고 하였던 것에서 유래한다.(석길암, p.6)

보법이 무엇인지 구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보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원효의 저서를 통해 정확해서 알 수 없으므로 표원의 인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법이란 일체법이 상즉 상입하는 것이다. 일체 세계가 한 미진에 들어가고, 한 미진이 일체세계에 들어간다. 삼세의 모든 겁이 한 찰나에 들어가고, 한 찰나가 삼세의 모든 겁에 들어간다. 大小, 促奢, 動靜, 一多와 같이 다른 일체문의 상입 또한 그러하다. 相是를 말하는 것 또한 그러하다. 일체법과 일체문에 있어서 하나는 일체이고, 일체는 하나이다. 이렇게 광탕한 것을 일러 보법이라 한다.¹⁸⁾

보법이란 글자 그대로 두루 통하는 법으로, 일체법과 일체문이 상입(相入)상시(相是)하는 광탕한 『화엄경』의 세계이다. 『화엄경소』 서문의 ‘무장무애의 법’과 동일한 의미이다. 역시 인용을 통해 다음의 비유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제석궁을 덮고 있는 보배구슬거물과 같아서, 하나의 밝은 구슬 속에 만상이 모두 나타나 듯, 이 하나의 밝은 구슬과 같이 모든 구슬이 모두 그렇다. 이것은 곧 일만 구슬의 영상이 모두 하나의 구슬에 들어가고, 하나의 구슬 영상이 일만 구슬에 두루 들어가는 것이다. 일체가 서로 받아들여져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보법도 역시 이와 같다.¹⁹⁾

원효에게 일승분교는 보법을 성취하기 위해 대승계와 수행을 강조한 것이라면, 일승만교는 보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보법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일승을 성취하여 불과(佛果)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범망경』과 『영락경』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수행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전이고, 『화엄경』은 깨달음의 세계를 설명한 것이다. 보법은 원효 화엄사상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인 동시에 사교판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⁰⁾

Ⅲ. 결론

본 고에서는 원효의 『화엄경소』에 나타난 4교판에 내용과 특징 등을 논하였다. 『화엄경소』에는 관련 내용을 전하는 부분이 없음에도 법장과 혜원 등 후대 화엄가들을 저서 등에서 인용된 자료들을 통해 원효 4교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공(法空)을 기준으로 소승과 대승을 구분하면서 대승 우위를 두는데, 대승을 다시 삼승교와 일승교로 구분하였다. 일승교 또한 보법을 기준으로 수분교와 원만교로 나누면서 일승만교에 『화엄경』만을 두었다.

각 종파간 경전의 우열을 가리려는 중국 불교의 교판경향을 원효가 비판했음에도

18) 표원, 『華嚴經文義要決問答』 卷4

19) 『화엄오교장지사』(T72, p.226c)

20) 조수동, p.211.

『화엄경소』에 나타난 4교판이 『화엄경』 위주의 교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종래 대립의 입장인 중관의 『반야경』과 유식의 『해심밀경』의 화쟁을 도모하는데 이는 교학연구의 차원이다. 그 상위에 일승으로서 대승보살계와 보살행을 중시하는 『범망경』과 『영락경』을 두면서 실천수행을 그 상위에 두고 있다. 이 점은 다소 파격이라 할 수 있는데 인행(因行) 최종적으로 보법을 다 밝힌 화엄사상을 증득한다는 것이 4교판에 나타난 원효 불교의 체계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 일승교에서 기준이 되는 보법의 의미를 살피었다. 보법이란 두루 통하는 법으로, 일체법과 일체문이 상입(相入)상시(相是)하는 법이다. 『화엄경소』 서문의 ‘무장무애의 법’과 동일한 의미이다. 보법은 원효 화엄사상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인 동시에 4교판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이 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고영섭, 『분황원효 불교사상사』, 운주사, 2024.
김상현, 『역사로 읽는 원효』, 고려원, 1994.
남동신, 『원효의 발견』,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논문

- 고영섭, 「분황 원효 저술의 서지학적 검토 - 敎判 認識과 學問 方法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사연구』, 2권 2호, 한국불교사연구소, 2013.
노채숙, 「원효의 교판 인식에 대한 연구 - 천태지의와 관련하여 -」, 『천태학연구』 제 13호,
석길암, 「원효의 보법(普法), 사상적 연원과 의미」, 『보조사상』 제32호, 보조사상연구원, 2009.
조수동, 「원효의 교판론과 일승설」, 『동아시아불교문화』 제5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0.
정희경, 「분황 원효 『화엄경소』의 내용과 특징」, 『불교철학』 제14집, 서울 : 동국대 세불연, 2024.